

성경이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

성경은 어떤 책임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전쟁과 같을 그리고 대립의 책이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인간의 죄, 마귀의 개입으로 인간 세상에는 늘 전쟁이 존재함, 2003년 7월 6일 뉴욕 타임즈
지난 34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때는 268년(8%), 20세기에만 1.1억 명이 전쟁으로 죽음

인류 역사에서 적어도 10억 명정도가 전쟁으로 죽음

누군가가 혹은 어떤 국가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혹은 이념을 파급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킴

이런 전쟁은 예수님 지상 강림 때에도 이루어짐, 마귀의 적그리스도 세력(19:11-16)

그리고 1000년 왕국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계20:7-10)

이로써 이 땅에서 전쟁이 마감됨

이 땅에는 늘 전쟁과 갈등이 존재한다. 전3:1, 8

그 이유: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있고 또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때가 있다.

이때에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과 따른 자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여 분리하신다.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 마25:34(오른쪽), 41(왼쪽), 즉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에 속한 자들과 오른쪽에 속한 자들이 분리된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계20:10), 불 호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왼쪽 사람들과 오른쪽 사람들의 가치(문화, 철학)가 대립한다.

동성애, 진화론 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처럼, 야곱과 에서의 대립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쪽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세계의 시민이다. 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로서 창조자의 의도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가치)과 옳지 않게 보시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신다.

우리말의 오른쪽과 왼쪽

1. 오른쪽은 '옳은 쪽'에서 나옴, 의롭다, 바른쪽, 바른손
2. 왼쪽은 '왼 쪽'에서 나옴. 외다: 형용사, a.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하다.
b. 마음이 꼬여 있다.
3. 이것은 결코 왼손잡이나 왼쪽에 서는 것, 건물 등이 다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영어의 Right과 Left

오른쪽 혹은 오른손은 'Right hand', 왼쪽 혹은 왼손은 'Left hand'

Etymology 사전

1. Right: good(좋다), proper(적합하다), fitting(적당하다, 어울리다), straight(곧다)
2. Left: weak(약하다); foolish(어리석다), lameness(다리를 절다), paralysis(마비)
3. Righteous: Right_wise에서 나옴, 즉 옳은 길 혹은 옳은 방법
4. Righteousness: 의, 동일한 히브리말이 정의로도 번역됨(Justice)

성경의 Right hand와 Left hand 통계

성경은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 성경은 성경으로 풀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안드로이드 앱 **LIFOVE** 혹은 **KeepBible** 통계:

1. 오른쪽 87회, 오른편 34회: 총 121회 + 오른손 84회 = 205회
2. 왼쪽 47회, 왼편 12회: 총 59회 + 왼손 20회 = 79회

성경의 Right hand와 left hand 용례

1. 왼쪽 오른쪽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 창13:9; 출14:22; 민20:17; 신2:27; 마27:38

-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창13:9).
2. 오른손, 왼손을 나타내는 경우: 창48:13-14,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
3. 모든 방향 즉 양쪽 모두에 어디에나 다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대하18:18, 잠3:16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대하18:18).
4. 어떤 식으로든 정도(옳은 것)에서 떠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수1:7; 대하34:2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수1:7).
 “요시야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대하34:2).
- 이런 구절을 오용하여 ‘국가관/세계관’ 등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율법’과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이다.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좋다는 말이 아니다. 가치관 및 세계관의 좌편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5.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출15:6, 12; 신33:2; 시17:7; 48:10; 60:5; 63:8; 77:10; 78:54; 80:15; 98:1; 118:15; 138:7; 139:10;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출15:6).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 같은 율법이 나왔도다.”(신33:2)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대로 주를 찬양함도 땅 끝까지 이르나니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나이다”(시48:10), Right hand, righteousness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사41:10), Right hand, righteousness
6.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쪽, 메시아 시편 시16:11; 110:1; 마22:44, 26:64; 막12:36; 14:62; 16:19; 눅20:43; 22:69; 행2:25, 33, 35; 5:31; 7:55-56; 롬8:34; 엡1:20; 골3:1; 히1:3, 13; 8:1; 10:12; 12:2; 뱀전3:22, 적어도 24구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시110:1).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행7:55-56)
7. 최종 심판과 관련된 경우: 마25:33, 34, 41
 “주님께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마25:33).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마25:34).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8. 하나님은 Right과 Left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쪽(Right hand)에,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왼쪽(Left hand)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신다.
 즉 옳은 것을 택하는 자들과 비뚤어진 것을 택하는 자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분리해서 두신다(마25).
9.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왼쪽)에 있느니라”(전10:2). A wise man's heart is at his right hand; but a fool's heart at his left.

10.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택해야 하고 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경의 Right hand와 left hand를 통해 본 죄와 구원 창조之初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창1:31). 옳았다. 다 ‘옳은 쪽’(오른쪽)이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남, 즉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 사람으로 태어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간다(사53:6).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0-12)

죄란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의 것(가치)을 택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의(Righteousness)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죄와 의, 왼쪽과 오른쪽**

즉 구원은 Righteousness를 받아 Righteousness가 되는 것이다.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교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옳은 쪽,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는 다 태생이 왼쪽 사람이라 시간이 걸린다.

다만 우리 교회는 목사와 리더들,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우(오른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성화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의 가치 요약: 십계명

이집트 탈출 이후 가나안 입성 전에 온 세상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완전한 법을 받음

출20장의 십계명

1.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2-3).
2.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 너는 살인하지 말라.
7. 너는 간음하지 말라.
8.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9.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처음 네 명령은 하나님 관련, 마지막 여섯 개 명령은 주변 이웃들 관련

예수님의 요약(마22:36-40)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2.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가치이며 이것을 하나님은 오른쪽의 가치로 보신다.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왼쪽의 가치이다. 비뚤어진 가치, 마귀의 가치이다.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우리가 말하는 우파 혹은 우익이란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오른쪽의)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정부 혹은 국가를 뜻한다.

우파의 가치는 현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웃 즉 국민에 대한 사랑이다.

특히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 즉 보통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자유, 질서, 복지, 그리고 국가 안보 등이 필요하다.

이런 가치가 현대 서양 정치사에서 보수, 우익 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모습으로, 이름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다른 신은 다 우상이요 가짜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이다.

알라, 부처, 마리아, 김일성, 일월성신, 새, 나무토막 등의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

그 결과 그는 최종적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왼쪽에 간다.

1. 창조(창1:1): 진화는 좌의 가치

2. 착취 No! 안식: 넷째 명령

사람/세상과 관련해서

우(오른쪽)의 가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6개는 대개 경제생활과 안전, 국가, 윤리 등과 상관이 있다. 여기서도 오른쪽을 취해야 한다.

정치, 이념 등 상관없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의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경제 개념, 땅을 홀리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창3:17-19).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살후3:10, 12; 엡4:28).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 시장 경제(오른쪽의 가치), 이것을 붕괴시키는 것은 왼쪽 사상

모두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항상 마귀의 선동(무료 복지, 무료 혜택, 큰 정부)

국가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다. 국가는 곧 정치 체제

십계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살인에 대해 언급하심. 사형제 집행(창9:4-6)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국가 혹은 정부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체제라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체제: 이슬람, 천주교, 공산주의, 나찌즘

이념과 종교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

이슬람: 코란이나, 죽음이나, 지하드라는 성전, 지금도 자살 폭탄 테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

경전 자체가 폭력과 테러를 조장한다(불신자 처단, 여성 아동 학대 등).

중세 천주교회: 교황의 신정 정치, 카톨릭 반대하는 자들 수없이 죽음, 위그노 300만 명 하-살

공산주의: 스탈린 약 2000만 명, 마오쩌둥 대약진 운동 5000만 명, 김일성 부자 적어도 1000만 명

캄보디아 킬링필드 200만 명, 히틀러의 나치즘: 적어도 1000만 명

우리나라에서도 6.25 당시와 이후 공산당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 죽음: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특징: 절대로 창점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거나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국가/사상/이념 체제를 미워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왼쪽 가치

이러한 체제는 경제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다. 인권이 없다.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를 보라. 천주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들을 보라.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여기의 극단적인 사례가 북한이다. 인권 없고 김일성 주체사상

핵무기 만들면서 국민을 굶어죽게 만드는 체제, 극좌 체제

전 인류를 볼모로 핵전쟁을 하겠다는 반 인류체제와 연합을 하고 이들을 도우면 안 된다.

<https://ian3714.blog.me/220904925306>

현시대 그리스도인의 책무

구원 받은 뒤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엡2:8-10).

국가와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

그중에서도 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동성애, 진화론 반대 중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 설립
정부가 잘못 서면 당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과거와 달리 이 시대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므로 감정에 의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뽑아야 한다. 왼쪽 사람인가, 오른쪽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역사를 조망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21세기는 국제화 시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의 장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있다.

중동의 에너지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이런 나라라 해도 그리할 것이다.

예루살렘 수도 선언, 북한 핵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이 있다.

누가 보아도 중국은 마귀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

시진핑은 뺏속까지 공산주의자, 죽을 때까지 북한 지원

미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 저 트럼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애를 쓰고 있다.

당선 연설, 취임 연설, 대한민국 국회 연설, 이스라엘 방문 연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 공산주의 반대, 이슬람 테러 반대, 남미 이민자들 국가 부담 반대, 친기업

우리는 이 두 나라의 틈바귀에 끼어 있다.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디를 의지할 것인가? 성경은 무어라 말하는가? 신약성경에는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야 한다.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즉 전체 성경의 3분의 2가 국가 이야기, 전쟁과 평화 이야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어디를 택해야 하는가?

트럼프와 미국을 택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4000년 동안 우리를 동쪽 오랑캐라 부르며 탄압, 핍박,

가장 최근에는 1950년 6.25 전쟁에서 30만 군대 파견해서 인해전술로 통일을 가로막음

북한 핵무기 위협 방치, 사드 배치 방해, 우리나라의 자주권 위협, 이대로 두면 영토를 다 먹을 기세

미국은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 줌, 37000명 사망, 실종 8,100명 부상자 92,000명

이런데 트럼프의 미국을 버리고 시진핑의 중국을 택하면 하나님의 왼쪽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1945년 광복 이후에 국내에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좀 먹는 불순세력들이 있다.

창의적인 일, 창조적인 일은 거의 안 하고 나라를 무너뜨려 공산화/좌경화 하려는 자들

김동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쓴 글 “맞아 죽을 각오로 쓴 글”, 유튜브, 세 부류들 척결해야 살 수 있다.

1. 중북 좌파(중북, 친북, 맹북),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사파(국회의원, 법조계, 교육계, 노동계, 시민 단체, 교회 목사 신부 등)
2. 강성 노조: 전체 근로자의 10%, 이들이 강경 투쟁하며 기업을 죽이는 일, 민노총
3. 전교조: 역사 왜곡

이들이 하는 일: 광장 선동, 광우병 선동

1000만 명 평화 서명 운동, “전쟁을 원하냐? 평화를 원하냐?”, 어리석은 자들

여기에 넘어가 서명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화는 힘이 없으면 얻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우리나라의 국시인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확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주의로 가면 반드시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무상 복지/평등 분배가 되면 국가는 망한다. 잠시 달콤하지만 곧 죽는다.
2. 70년 동안의 근대사를 공부해야 한다.
7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반공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산업화를 이룬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3. 그동안 너무 사상 및 이념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냈다. 하나님의 올바른 사상의 빈곤으로 인해 교회가 타락하고 몰락하게 되었다.
4. 이를 위해 TV를 꺼야 한다. 종편은 아예 안 봐야 한다.
5. 미려한국, 미디어 펜, 유튜브 우파 방송(저질 제외)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자세

하나님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에 중도란 없다.

못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도는 불가능,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을 수 있는가?

믿음과 이념은 별개가 아니다. 신도불이처럼

복음은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이념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 진리의 영이 지도하시므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은 좋지만 교회란 한마음, 한 가치를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자신의 생각과 정보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에 맞는지 살펴보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버려야 한다.

목사의 말은 맞지만 그래도 가르치면 안 된다(틀린 말). 나는 가르친다. 하나님의 가치이기에

또 이 일로 파당을 형성하면 안 된다. 극우도 안 된다.

삶과 믿음이 같이 가야 한다. 구원 따로, 세계관 따로 놓면 안 된다.

재림 신앙

이 땅은 죄 많은 사람들이 통치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바르게 투표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쓸 뿐이다.

모두가 물에 떠내려가도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우리는 바른 국가/정부를 세우기 위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면서

보수, 우익,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해 또 부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문제가 있기도 하다.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오른쪽의 정신과 방향은 옳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

또 모든 복지의 전제가 되는 안보를 허무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이다.

북한의 ICBM 핵탄두 탑재 기술 완료 시점까지 이제 2-3달 남았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